**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1) / 캐더린 쿨만**

****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1)

나는 무대 위에 있는 강단 앞에 설 때,

회중들에게 매우 민감해집니다.

내가 사역하는(minister) 사람들의 얼굴과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의 다양한 표정을

내가 얼마나 잘 보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안다면 틀림없이 놀랄 것입니다.

집회가 시작되면 어떤 사람들은 생각을 조용히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고 있으며 자기 주변을 거의 의식하지 않습니다.

주위 사람과 잡담하고 있는 사람, 자기의 복장을 살피고 있는 사람,

집회장에 들어오는 사람을 앉은 채로 바라보는 사람 등이 있습니다.

얼굴에서 빛을 발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들의 표정에서

주변 사람들에게는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주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후에 내가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하면

압지(blotter)나 스폰지에 비유될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말하는 한 마디 한 마디를 모든 신경을 집중해서 듣고,

그것을 완전히 빨아들입니다.

그렇지만 전혀 어떤 반응도 나타내지 않고, 잠자코 앉아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들은 무엇에 대한 설교였는지 들었지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이렇습니다.

의에 목말라하며 하나님께 굶주려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양식을 진실로 갈망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무관심하고 자기는 아무 것도 노력하지 않고

주님이 "자신의 주머니에 뭔가 넣어주는 것"만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더구나 무언가를 보아도, 어디를 가더라도,

단지 그것뿐입니다.

(캐더린 쿨만이 지은 “복 있는 사람들” 중에서...)